

# 2010 서울 북페스티벌

## 덕수궁 가을...책 향기로 물들다

2010 서울 북(BOOK) 페스티벌이 지난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덕수궁에서 개최됐다. 올해 행사의 주제는 '북(book)돋움-한권의 책, 꿈을 이루게 합니다'로서,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의 장을 통해 시민들은 한권의 책이 사람에게 전해주는 희망과 행복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마련됐다.

### 시민 참여접근성 높고 책 읽기 좋은 환경의 덕수궁에서 열려

서울시 주최로 지난 2008년 시작, 세 번째를 맞이한 서울의 대표적 책 축제인 이번 행사는 시민들의 참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경희궁이 아닌 덕수궁으로 자리를 옮겼다. 책을 통해 인생의 에너지를 충전하고 희망을 북돋움 하듯, 도시인들에게 생활의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휴식의 공간 덕수궁에서 북 축제를 진행함으로써, 한권의 책을 읽는 공간이자 문화의 공간으로 덕수궁을 재조명하고자 했다.

### 4개의 테마로 진행

2010 서울 북(BOOK) 페스티벌에선 덕수궁을 북돋움·배움길·북돋움 책길·북돋움 문화길·북돋움 나눔길로 4개의 테마로 나누고, 각 내용에 맞는 프로그램을 배치했다.

직접 참여해 동화 속 이야기를 점토로 재현하는 '점토세상', 기부를 통해 희망을 찾는 '아름다운 책장', 헌책을 나누는 '벼룩시장',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는 '직업관전' 까지 이번 페스티벌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에서 나아가 몸으로 체험하고 즐기는 프로그램을 통해 공익성과 재미를 함께 나누고자 했다.

### 북돋움 라이브러리

#### - 유명 저자와 이 시대 전문 직업인들의 강연

우선 <북돋움 라이브러리>에선 '세월의 깊이를 품은 한명, 한명의 사람이 바로 한권의 책과 같다'는 주제로 다양한 직업인들의 강연을 들을 수 있었다.

강연은 고종이 연회를 즐기던 장소인 정관헌에서 진행되었으며 박세열, 박용현 등 유명 저자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직업을 10년 혹은 그 이상을 묵묵히 걸어온 음악가 한반, 영화배우 마복알업 등 이 시대 장인들이 들려주는 삶과 직업, 외길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북돋움 라이브러리는 '뜨거운 여행'을 쓴 기자 '박세열', '인문학으로 광고하다'를 집필한 광고인 '박용현', 음악가 '한반', 남이섬

대표이사 '강우현', 영화배우 '마복알엄', 칼럼리스트 '한윤형', 소설가 '주원규', 연극인 '윤진성', 동화작가 '이혜란'이 함께하며 자신들의 전문 지식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 아름다운 책장- 다 읽은 책은 소외지역이나 해외동포 어린이를 위해 기부

책과 관련된 내용 중 눈에 띄는 또 하나의 프로그램은 '기부'다. 책장 속 뽀얀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는 수많은 책들. 이젠 나눔의 장으로 이런 취지를 담아 이번 북 페스티벌에서는 예전에 읽고 책장에 꽂아둔 책을 기부 받아 소외지역 어린이나 공부방 및 해외동포 어린이를 위해 기부하는 <아름다운 책장>을 진행했다.

### 금속활자부터 전자북과 1인 출판까지 책의 역사를 전시로 만난다

책속에만 지식과 지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2010 서울 북 페스티벌에서는 다양한 지식의 장이 전시를 통해 펼쳐졌다. '책의 역사'에선 금속활자 디오라마 전시 및 직지 인쇄 체험, 전자북 시연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최근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1인 출판에 관한 소개를 해주고 및 진행 방법들을 상담해 주며 다양한 정보도 제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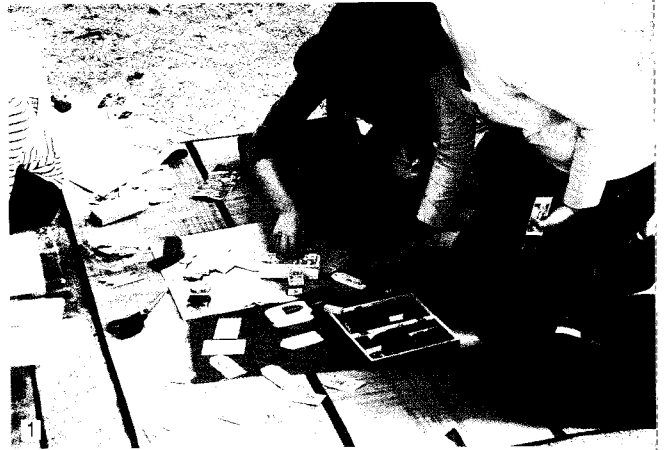
'세계 문화전'에서는 지금까지 볼 기회가 드물었던 세계 각국 유명 도서 소개 및 전시했다. 중국, 몽골, 이란, 베트남, 일본 등의 도서를 만날 수 있었다. 서울시의 역사와 문화를 다룬 도서 전시 등이 준비되어 푸짐한 볼거리도 마련됐다.

### 책, 재미있게 맛있게 읽자

'책'에 대한 편견을 깰 수 있는 재미있는 책읽기와 관련된 프로그램도 준비되었다. <맛있는 책읽기>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재미있고 유익하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강연이며, 동화구연의 경우에는 주부 동아리로 활동 중인 '엄마'들이 직접 어린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줌으로써, 아이들에게 '책'에 대한 호감도를 형성해 주었다.

### 벼룩시장, 책도 나눠 읽으면 더 좋은 세상

시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벼룩시장'은 자신이 읽었고, 현재 소장하고 있는 책들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다. 책꽂이에서 먼지만 쌓여가는 책을 판매해서 좋고, 저



1. 직접만든 활자로 책갈피를 만들고 있다
2. 인쇄문화관 부스에서 관람객이 고인쇄 체험을 하고 있다
3. 북돋움 배움길에서 가족행사가 진행되었다
4. 해외동포책보내기운동협의회 부스 모습

렴한 가격에 책을 구입해서 좋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

### 대한인쇄문화협회 · 청주시, 인쇄문화관 운영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와 청주고인쇄박물관(관장 정준영)은 금속활자로 인쇄된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0 서울북페스티벌' 행사에 인쇄문화관을 운영했다. 18m<sup>2</sup>(6m×3m) 크기의 전시 부스에 인쇄문화관을 마련해 직지 영인본(하권), 복원본(상권)과 직지 금속활자 제작과정, 직지 홍보 패넌 등을 전시해 직지의 인류문화사적 가치와 금속활자가 인류발달에 끼친 영향, 과학발달사에서의 역할 등을 중점 홍보했다. 또한 자원봉사자가 현지 상주하며 관람안내와 직지 금속활자관 인쇄체험을 실시하는 한편 관람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 박성권 기자 vovsys@print.or.kr